

〈사조선록 역주 1: 송사의 고려 사행록〉 pp.1~100

I. 역자 서문 - 김한규

- 원저: 〈中朝關係史料叢刊-使朝鮮錄〉(은몽하,우호 편, 북경도서관출판사, 2003)
 - 북송/고려중기부터 청말/조선말까지 중국이 한반도에 파견한 12명의 사신들이 조선에 다녀온 기록을 출판한 사행록 18종 모음

#	中 ¹⁾	韓 ²⁾	저자	방문 연도	시대(中)	시대(韓)	제목	중요도 ³⁾
1	上	1	서공	1123년	송 휘종 선화 4년	고려 인종 원년	〈선화봉사고려도경〉	V
2	上	1					〈선화봉사고려도경〉 - 〈각보우록〉본	
3	上	1					〈사고려록〉	
4	上	2	예겸	1450년	명 경제 경태 원년	조선 세종 32년	〈봉사조선창화집〉	
5	上	2					〈조선기사〉	
6	上	2					〈요해편〉	V
7	上	2	장영	1460년	명 영종 천순 4년	조선 세조 6년	〈보안당정정방주선생봉사록〉	
8	上	3	동월	1488년	명 효종 홍치 원년	조선 성종 19년	〈조선부〉	V
9	上	3					〈조선잡지〉	
10	下	3	공용경	1536년	명 세종 가정 15년	조선 중종 31년	〈사조선록〉	V
11	下	4	주지번	1606년	명 신종 만력 34년	조선 선조 39년	〈봉사조선고〉	V
12	下	4	강알광	1626년	명 희종 천계 6년	조선 인조 4년	〈유헌기사〉	V
13	下	5	아극돈	(4회)	(칭)	(숙종 ~영조)	〈동유집〉	
14	下	5	아극돈, 정여				〈봉사도〉	V

15	下	5	백준	1843년	청 선종 도광 23년	조선 현종 9년	〈봉사조선역정일기〉	V
16	下	5	괴령	1866년	청 덕종 동치 5년	조선 고종 3년	〈동사기사시략〉	V
17	下	5	마건충	1882년 (3회)	청 덕종 광서 8년	조선 고종 19년	〈동행삼록〉	V
18	下	5	승례	1890년	청 덕종 광서 16년	조선 고종 27년	〈봉사조선일기〉	

- 1) 은몽하,우호 편 〈中朝關係史料叢刊-使朝鮮錄〉 上,下권 중 수록 권호
- 2) 김한규 역 〈사조선록 역주〉 1~5권 중 수록 권호
- 3) 중복,부수적인 사료 외에 역자가 뽑은 중심 자료 10종 (이하 ➔)

- 저자의 직책: 정사 16종, 부사 1종 (#18), 제할관 1종 (#1)
- 기록 형태: 산문 8종, 운문 4종, 산문 겸 운문 5종, 시화 포함 1종
- 국문 번역 여부: 2종(#1,#8)은 이미 국문 번역된 적 있으나 16종은 이 책이 처음

#1~3 서궁

- 서궁: 북송 말, 남송 초의 문학지사 출신의 관료 - 국신사 제할관으로 고려 사행
- 그림과 글로 정리하였으나 그림은 전란으로 소실
- 〈선화봉사고려도경〉: 고려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역사 전반에 대한 정보 상세, 고려까지 바닷길로 왕래한 과정, 고려 정부 관원과의 교섭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
- 〈각보우록〉본: 청대에 학인에 의해 교감
- 〈사고려록〉: 〈고려도경〉 중 해로 왕래과정만 기록

#4~6 예겸

- 예겸: 명 초의 대표적인 문학지사 출신의 관료
- 〈봉사조선창화집〉: 정인지 등 문사 관원들과 주고받은 시문들을 모음 - 문학적 역량을 교류, 은근히 경쟁 - 문학적+사료적 가치
- 〈조선기사〉: 북경➔한양➔압록강 동강 때까지의 일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산문
- 〈요해편〉: 예겸의 기행문,사행시를 모음
- ➔ 예겸 이후로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높은 지위의 문학지사가 조선에 정사로 오는 일이 관례화
- ➔ 조선의 문학지사들과 창화한 시가를 모아 출판하는 일도 관행화

#7 장영, 〈보안당정정방주선생봉사록〉

- 조선에 사행하여 조선 문학지사들과 주고받은 창화시
- 사행목적: 여진과 관련된 외교 현안 해결

#8 동월, 〈조선부〉

- 기행문 형식의 보고서, 황제에게 제출
- 운문의 한 형식인 賦(부) 형식으로 저술 - 조선의역사,지리,풍속,물산,제도,노정,경관,문물,유적 및 조서의 전달 의례와 연회 등을 자세히 기술
- ➔ 중국에서 간행된 직후 조선에서도 인행,유포

#9 동월, 〈조선잡지〉

- 〈조선부〉의 내용을 산문 형식으로

#10 공용경, 〈사조선록〉

- 황태자 출생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파견
- 상권: 조선에 와서 경험한 의례에 관한 산문 - 하권: 여로에 지은 시, 의례에 관한 자신의 견해 산문
- ➔ 조명관계의 의례에 관해 특히 중요한 자료

#11 주지번, <봉사조선고>

- 원손 출생을 알리기 위해 파견
- 북경→한양→압록강도강가지 여정을 시로 표현
- 제1책: 주지번의 시 - 제2책: 원접사 류근 등 조선 관원들과 나눈 창화시 모음
- ➔ 한중관계사를 이해하기 위한 창화시 자료의 대표격

#12 강알광, <유헌기사>

- 본래 임무: 황태자 탄생 알림
- 실제 임무:
 - 1) 만주가 흥기하여 요동을 석권하고 모문룡이 압록강 입구에서 농성 중, 모문룡을 탐색, 견제 - 여진과 명 사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조선의 성의 확인
 - 2) 조선으로 피난한 요나라 인들을 보호 - 조선측의 물적 지원을 일체 거절 (명사의 일상적 접대 기록) - 조선 정부가 변방의 요민을 원조하도록 압력
- ➔ 명말 청초 동북아의 미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
- 원래 사절단의 통로였던 요동이 여진에 의해 장악, 해로를 통해 내왕함 - 해상의 풍랑을 만나 天妃에게 기도
- ➔ 전통시대 한중해상교통로와 민간신앙 연구에 중요 자료

#13 아극돈, <동유집>

#14 아극돈, 정여 <봉사도>

- 아극돈: 만주인 고급 관리 - 조선 사행 4회 특수한 경력 (1차: 조선 국왕에게 공칭이라는 눈약을 가져다 줌 - 2차: 황태후의 죽음을 알림 - 3차: 세자 책봉사 - 4차: 조선국왕 영조 책봉 (1725))
- <봉사도>: <동유집>의 내용을 정여가 그림으로 그리고 <동유집>의 시문을 좌우상단에 써넣음
- ➔ 현존하는 유일한 봉사도

#15 백준, <봉사조선역정일기>

- 백준: 몽고인 관료
- 왕비 김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파견, 산문 기행문과 시문
- ➔ 한중 양국 사절단의 여정이 특히 구체적으로 기술

#16 괴령, <동사기사시략>

- 괴령: 만주인 관료
- 왕비 책봉을 위해 사행
- 일기 형식의 산문에 시를 병기
- ➔ 한중관계가 안정된 시기, '전형적' 한중관계의 제 양상

#17 마건충, <동행삼록>

- 마건충: 한인 관료 - 프랑스 유학, 서양 각국 언어에 능통 - 당시 동북아외교를 관장하던 북양대신 이홍장 밑에서 양무의 일을 맡음
- ➔ 1882년 조선에 3 차례나 왕래: 조선이 미,영,프(1차),독(2차) 등 서양 각국과 수교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 - 임오군란 진압 및 대원군을 중국으로 연행 (3차)

#18 승례, <봉사조선일기>

- 왕대비 조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사로 사행, 기행문을 산문으로 기록 - 조대비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사신 파견까지 행정적 과정이 상세히 기술
- 조선측 요구대로 경비가 많이 드는 육로 대신 산동→인천 직행하는 해로를 이용, 한중관계사상 독특한 사례

- 18종 사료에서 나타난 전통시대 한중관계의 일반성
 - 1) 책봉-조공 관계의 지속
 - 일시적 단절은 있었으나, 중주국과 번속국이 책봉과 조공의 예를 교환하는 차등적 국제관계의 관성이 지속적
 - 2) 문화적 동질성(同文)에 대한 공동 인식
 - 명청 시대 중국 사절단은 한양 사행 길에 평양의 기사 사당, 한양 성균관의 문묘 참배
→ 한중 간의 역사적,문화적 연결고리 확인, 양국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이념적 근거
 - 3) 창화(倡和) 외교
 -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호응한다’: 한쪽이 시를 지으면 상대방이 운을 맞추어 화답 시를 지음
 - 예겸 이후로 명청 사신과 조선 접반 사이에 시문을 교환하는 창화의 관행이 일반화되어, 단순히 시문이 아니라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 번역연구로서 역자의 원칙,기준
 - 1) 문학작품으로서 보다는 한중관계사의 사료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번역
 - 2) 사료적 가치 보존을 위해 의역보다는 직역
 - 3) 고유명사나 역사적 용어 또한 원문 용어 유지
 - 4) 한문사료를 읽을 수 없는 연구자를 위한 번역, 한문학,문학 용어 주석
 - 5) 최초 번역 16종의 경우 주석에서 사전적 설명을 포함하는 등 일차적 작업에 주력

II. 편집자 서문 - 유위

- 원고시대부터 중국 대륙과 한반도의 긴밀한 관계 - 중원의 청동기 문명을 가져간 기자조선, 진한,서진까지 중국 왕조가 한반도에 영향 행사
- 신라-당 시기에 전통적 중국-조선 관계 성립 - 봉건 예법 제도를 사상적 기초로, 책봉-조공 관계를 표현형식으로 하는 종번관계
- 신라에 이어 고려,조선도 유가에 기반한 봉건예법 제도를 그 건국의 근본으로 삼아, 중원-한반도 왕조 간의 종번 관계가 “고대 동방 사회의 가장 전형적이고 안정된 종번 관계가 되었다.”
- 12세기 동안 지속: 다양한 사명과 거대한 규모의 사절단 - 경제적,문화적 쌍방 교류
- 사료적+문학적 가치: 사신 본인(정사)에 의해 저술, 유람기 성격을 동반
- 반면 조선 측의 초천록,연행록은 대다수가 사절단의 하급 관원과 문인들의 기록으로, 경제,문화 교류의 실황과 하층민 풍속을 대량으로 기록하여 중원 왕조의 사상,문화,과학,기술 등에 대한 평론 포함, 조선의 학술,사상 발전에 거대한 영향 - <사조선록>은 이러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못함
-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
 - 서궁 본인이 회화와 서예에 능함
 - 총 40권: 조선의 왕실,관원,성읍,건축,민간풍속,물산,기물,예의,제도,선박,바닷길 등
 - 고려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오류가 있다고 지적
“고구려는 기원 후 1세기에 고대 중국의 동북에서 형성된 일개 지방 민족 정권으로, 중원 왕조의 압력을 받아 고구려는 기원 후 5세기에 도성을 평양성(지금의 조선 평양)으로 옮겼지만, 이것이 고구려가 고대 조선 민족 국가의 일부분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서궁이 고려에 도달했을 때는 당 왕조와 신라의 관계가 밀접했던 시대와 이미 2백여 년이 떨어졌고 고구려가 멸망된 지 이미 5백여 년이 지난 뒤였다. 그 사이의 혼란과 단절로 인해, 북송인은 … 흐릿하고 혼란스러워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요와 금의 침입이 고려의 자존과 대항의식을 일깨워 김부식이 고려가 ‘삼국’에서 나왔다는 ‘설’을 만들었다고 설명 -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가 역사상 제왕이나 귀족, 명인의 후예라고 자랑하고 빌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 다수는 아마도 거짓말 같은 허구로 날조된 것...”

- 아극돈, <봉사도>: 중한관계가 안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시기
- 승례, <봉사조선일기>: 서방의 영향 하에 중국과 조선이 전통적 관계를 유지 시도
- 마건충, <동행록>: 전통적 중한관계가 위협받던 시기 유지하기 위한 청의 적극적 외교 행동

III.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

1. 해제

- <선화봉사고려도경>
 - 1123년 (송 휘종 선화 5년, 고려 인종 원년) 북송 사절단의 제할관이었던 문학지사 서궁이 황제에게 올린 복명(復命) 보고서
 - 북송-고려 외교에 관한 중요한 자료: 북송 사절단의 사명, 구성, 입국 경로, 의전 절차, 고려 정부의 예우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
 - 총 40권: 1~2권: 한국의 왕조 역사와 왕실 / 3~7권: 개경의 성곽과 궁전 / 8권: 고려의 주요 인물들 / 9~15권 의례용품, 의장호위대, 무기, 기치, 수레 등 / 16~19권: 종교와 사찰 / 20~23권: 사회 계층과 풍속 / 24~32권: 사절단에 대한 예우와 의례 절차 / 33~39권: 한중간의 바닷길 / 40권: 역법, 유학, 음악, 도량형 등 중국과 같은 한국의 문물
- 선화사절단의 방문목적
 - 1) 咨詢 (현지의 상황을 파악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군주로 하여금 현지의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2) 요가 패망해가는 시점에 고려에 책봉의 청원을 권유, 려송복교 이후 본격적으로 책봉-조공 관계의 복원을 도모
 - 3) 고려 왕의 사망에 대해 전위(제전과 조위)의 의전의 실행
- 선화사절단의 구성
 - 정,부사: 國信使로서 송 휘종의 조서를 고려 국왕에게 전달하고 고려왕의 조문과 위로의 예를 수행
 - 상절: 제할관 서궁: 고려의 정보를 수집하여 황제와 조정에 보고
 - ➔ 정,부사와 상절은 명망 높은 문학지사 가운데 선발, 고려인의 희망에 부응하고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인정하는 북송 황제의 의지를 보여주며, 문화대국으로서 중국의 힘을 과시
 - 중절: 실무 책임자
 - 하절: 실무 담당 하급 관리 등
- 선화사절단의 이동 경로
 - 요동의 경유하는 육로, 산동에서 한국으로 가는 북방해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중국 浙江 明州의 定海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禮成港(벽란도)으로 입국
 - 출국: 1123년 3.14. 개봉 출발 - 1123.5.24. 정해 출발 - 1123.6.6. 군산도 도착
 - 귀국: 7.15. 예성항 출발 - 8.27. 정해 도착
- 당시의 한중관계
 - 책봉-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요보다 북송사절단을 더 극진하게 대우
 - ➔ 외교적,제도적 관계를 넘어 중국과의 역사적,문화적 관계를 더 중시하였음
- 서궁의 고려 인식
 - ‘부정확한 부분’: 고구려와 고려를 동일한 국가로 간주, 요해의 역사는 한국사에 포함시키고 신라와 백제의 역사는 배제

- 전반적으로 매우 우호적: 기자 이래로 대대로 중국과 책봉-조공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인식
- 중국화 한 한국문화는 긍정적으로 평가, 중국적 외형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국의 고유 문화는 비판 - 기자조선 뿐 아니라 송조의 문화적 시혜로 이해
- 전통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선화사절단의 사명에 당위성을 제공 - 한중간 문화적 동질성(同文)을 강조 - “이제 北虜가 멸망하였으니 고려가 곧 사신을 보내 正朔을 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40권) - 그러나 실제로는 북송이 곧 멸망
- 서궁의 일생
- 출판 경위
 - 정본,부분을 만들어 정본은 御府에 진상(1124), 부분은 본인 소장- 정식 출판 전 1127년 정강의 변 때에 그림은 이미 소실 - 서궁 사후 13년 뒤인 1176년 조카 서천이 처음 출판
 - 청 황실의 장서각에 보존되고 있었던 송본(정강본)을 1931년에 고궁박물관에서 영인, 발간

2. 본문: 서문, 제1~5권 (pp.51~102)

서문

- 관료와 사신의 역할, 정보 기록 및 관리의 중요성

“담당 관리가 (圖籍을) 보관하는일은 특히 아주 엄격했고, 使者의 직분 가운데서 이 일은 더욱 중요했다.”

“行人의 직분을 맡은 관리는 도로를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축하하거나 군대를 위로하는 일과 같은 종류의 다섯 가지 일들은 모두 빠짐없이 처리하였고, 태평이나 빈곤과 같은 종류의 다섯 가지 일들은 모두 분별하여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왕이) 천하의 실정을 두루 알게 하였다.”

“하물며 高麗는 요동에 있어, 후북이나 전북 등 가까이 있는 제후국 처럼 아침에 명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도적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렵다.”

“...두루 탐문하는 일이 바로 사자의 직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삼가 귀와 눈이 닿는 대로 많은 이야기를 널리 채집하여, 그 가운데 중국과 같은 것은 간추리고, 다른 것 300여 조목만 취해서 40여 권으로 정리했다.”

제1권 국가의 건립

“신이 듣기에, 만이의 군장들은 대개 속임수나 완력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 오지 고려만은 기자가 덕을 베풀어 후작을 얻은 이래로 ... 다른 성(을 가진 왕조)들도 여전히 한의 작을 사용하여 대대로 그 지위를 누렸고, 위에는 안정된 왕권이 있고 아래에는 높고 낮은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

첫 책봉

- “고려의 선조는 주 무왕이 조선에 책봉한 기자 서여인데, 실제 성은 자 씨다.”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고구려 건국설화 - 고구려 책봉 - 한과 고구려의 갈등 - 당의 고구려 정벌 - 발해의 건국 - 발해가 당에 칭신 - 발해의 해체 - 왕건의 칭신, 건국

제2권 왕위의 계승 차례

왕씨 왕조

- 태조~성종까지 계승 및 책봉
- 995년 거란이 침공하자 성종이 “겁이 많고 나약하여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북경(거란)을 신하의 예로 섬김으로써, 마침내 조공을 빠뜨리게 되었다.”
- “(지금의) 황제께서 황위를 이어받아, 선조를 뒤쫓아 사모하며 효성을 이루고 그 위업을 계승하자, 해내와 해외에서 신침이 되지 않은 자가 없고, 덕택이 번복까지 미치고 은혜가 해외의 구석까지 베풀어지게 되었다. ... 고려국에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서 칭찬하고 총애하며 어루만져 줌으로써 신고의 뜻을 이어 더욱 크고 융숭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徽(문종)는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사리를 잘 따라 중국을 존중할 줄 알았고,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도 예의와 뜻이 성실하고 ...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어질고 자애로움을 중시하였으니”
 - 송과의 국교를 복원(려송복교)한 선대 문종에 관한 긍정적 평가

고려국왕 왕해

- “楷(인종)는 얼굴이 잘 생겼고, 키는 작고 몸집이 커서 살이 쪼 보이지만, 성품이 지혜롭고 학식이 많다. 또한 매우 엄격하고 공명해서, … 이번엔 사자가 도착하여, 조서를 받고 표문을 올리며 향연의 예를 행할 때에, 올라가고 내려가거나 나아가고 물러남에 이른 같은 침착한 풍모가 있어, 역시 동이의 현왕이 되직해 보였다.”

제3권 성곽과 읍락

“신이 듣기에, 사이의 군장들은 흔히 산과 계곡에 의지하거나 물과 풀을 따라 수시로 옮겨 다니는 것을 편리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국읍의 제도가 있음을 일찍이 알지 못했다고 한다. … 그러나 고려와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종묘와 사직을 세우는가 하면 … 중화를 본받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기자가 옛날에 책봉 받은 곳이어서 중화의 오랜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정이 근래에 사자를 보내어 그 나라를 살펴보고 위로하게 하였는데, … 실로 쉽사리 멸시하거나 알볼 수 없었다.”

영토 고려의 위치, 면적, 주변국 - 북방 경계와 강수

지형과 지세 “고려인은 본디 글을 알고 도의 이치에 대해 밝았지만, 음양설에 얽매어 꺼리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도읍 “고려는 당대 이전에는 대체로 평양에 있었다. (평양은) 본래 한 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했던 곳이고, 당 고종이 도호부를 세웠던 곳이다.”

누각

민가 “민간 거처의 형세와 높낮이가 마치 별집이나 개미구멍과 같다.”

시가 “왕성에는 본래 시가지가 없다. … 단지 밖에서 보기에만 좋게 하였을 뿐이다.”

교역 “사자가 도착할 때마다 모여서 큰 시장을 벌여 갖가지 물건들을 진열했다고 한다. … 때에 맞추어 진열해 놓을 뿐, 고려의 풍속이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군현 “주현의 설치는 그 실재가 이름과 부합하지 않으니”

제4권 궁문

“고려의 궁문 제도도 옛 제후의 예법을 많이 좇았다. 비록 그들이 여러 차례 상국을 방문하면서 열심히 흉내 내고 본뜨려 애를 썼지만, 재료가 부족하고 솜씨가 서툴러서 결국 질박하고 촌스럽게 되었다고 한다.”

선의문 - 바깥문 - 광화문 - 승평문 - 동덕문 - 궁전문

➔ 문의 위치를 기준으로 도성의 구조를 설명

제5권 궁전 1

“하동이나 북로는 털로 짠 장막으로 성과 집을 삼고 계정마다 물과 풀이 있는 따뜻하고 서늘한 곳을 찾아 수시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 [그러나 고려는] 궁실을 갖추고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 휘차가 나는 듯한 화려한 용마루가 연이어지고, 붉고 푸른 단청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깊고 그윽하다. 그러나 … 마치 큰 산에 있는 사당이나 산사와 흡사”

왕부 - 회경전 - 건덕전 - 장화전 - 원덕전 - 만령전

➔ 궁내 각 건물의 위치, 형태, 용도, 의례 상세